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방법 일반후원, 정기후원, 결연후원, 물품후원, 사업후원을 정기적으로 하시려면 전화문의 또는 방문 후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시고 CMS(자동이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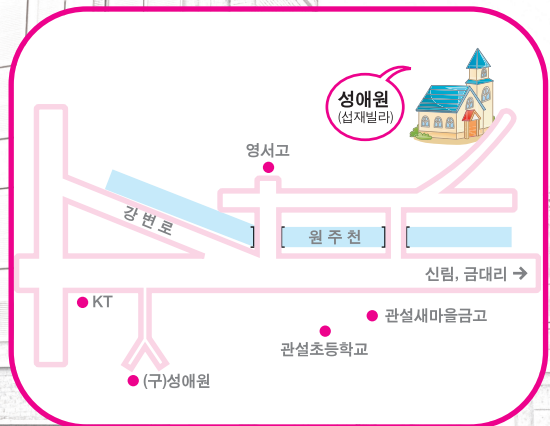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국민은행 : 303-01-0511-899

예금주 : 성애원
농협 : 209-01-544901
우체국 : 201061-01-002181
국민은행 : 303-01-0511-899
신한은행 : 995-01-007347
우리은행 : 111-047220-13-301
기업은행 : 128-053763-01-018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종합소득금액 100%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후원자분들께는 연말 소득공제용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 고속버스터미널에서 : 41-2/2-1
- 사외버스터미널에서 : 2/2-1/41/41-1
41-2/42

- 1 관설동 관설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2 길 건너 앞 **건영할인마트** 옆길로 좌회전 하여 다리를 건넙니다.
- 3 다리를 건너 **섭재마을**로 직진하여 오시면 **섭재빌라**입니다.



SuNGaE
Welfare Corporation **WON**



사 회 복 지 법 인
성애재단

E-mail : sungae2107@hanmail.net

Tel. 033)761-2107, 762-2107 Fax. 033)763-0034

원훈 | We trust



♥ 성애원 입구를 새로이 단장했어요. 많이들 방문해 주세요!

2009년 4월 제18호

손에손잡고

-
- 2009년 4월 발행 ·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성애재단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441-1 · TEL (033)761-2107, 762-2107 · FAX (033)763-0034
 - <http://www.sungaewon.or.kr> · E-mail sungae2107@hanmail.net
-

SuNGaE
Welfare Corporation **won**



사회복지법인
성애재단



어느 부부

“섬길 수 있어서 참 기뻐이었습니다.
우리부부를 새롭게 하신 감동이 원장님,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통해
흘러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젠가부터 한 가족을 이끌고 이곳 성애원을 방문하셨던
저희에게 크게 다가온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40쯤이나 중반 정도 되었을 듯한 부부였습니다.

1박2일 동안 다른 많은 분들의 섬김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요구없이 그 두분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고 아이들 한명 한명을 챙겨주시고
웃음으로 대해주시는 두분을 보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경험해 봅니다.

만족과 기쁨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오는 것임을
두 부부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선 듯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의 웃음을 짓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섬김의 분들로 인하여
이땅은 희망이 넘칩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들로 통하여
이땅은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베푸신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 (행 20:35)



사냥개



잘 훈련된 사냥개 몇 마리를 데리고 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섭니다.

멀리서 목표물을 발견한 사냥꾼은 이내 방아쇠를 당깁니다. “따~양” 총소리와 함께 목표물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 나가는 사냥개들!

그들 중 몇몇은 목표물을 정확히 본 사냥개와 목표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냥개들의 뒤를 쫓는 사냥개들이 있습니다. 목표물은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칩니다.

사냥개들도 계속 소리를 내며 쫓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물을 직접 보지 못한 사냥개들은 그만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는 사냥개가 있습니다.

바로 목표물인 사냥감을 눈으로 바라본 사냥개입니다.

그 사냥개는 깊고 험한 숲속의 수많은 장애물을 헤치며 목표물의 흔적을 쫓아 그의 후각과 그의 끈질김으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사냥개의 임무를 말입니다.

“직장이 여기밖에 없나 뭐?”

“아~이 이젠 생활도 지겨워”

“휴학해야 되겠어요, 학교생활도 이젠..”

“일이 쉽지 않네~요”

주변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직장 초년생도 기존의 사회인도 학생들도 아이들도...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하고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개처럼 목표를 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좌절하게 만들어도 앞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할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추어야 할 분명한 과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여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이,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힘을 다해 목표물을 향해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목표물인 사냥감을 눈으로 바라본 사냥개처럼 말입니다.

